

“불황엔 염색도 직접”... 알뜰족 늘었다

염색약 88%·차 청소용품 14% 매출 늘고 생선 통조림 등 대체식품 2배 더 잘팔려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매출 부진이 시달리고 있는 지역 유통가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불황형 인기상품’들이 있다. 농수산물과 과일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가격변동이 없고 저렴한 대체식품인 통조림이나 셀프용품들이 잘 팔리고 있다.

◇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21일 광주지역 이마트 5개점(광산·광주·동광주·봉선·상무)에서 7월27일부터 8월19일까지 과일 통조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117.6% 급증했다. 비싼 과일 대신 가격이 저렴한 과일 통조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에 해파리 출몰까지 겹쳐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등어 등 생선 통조림도 매출이 10.9% 증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과 신선식품 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통조림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들도 이런 추세에 맞춰 통조림, 건조식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받는 서비스에서 ‘셀프 모드’로

=고물가로 씬씀이가 줄면서 염색, 손편리, 세차 등을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하는 ‘셀프 모드’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광주점)가 지난 한 달 간 셀프 용품의 매출 추이를 분석할 결과 염색약 매출이 87.5%나 급증했으며, 손편리 용품도 매출이 23.1% 늘었다.

세차비용을 아끼려는 알뜰족 덕분에 자동차 청소용품 매출도 늘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는 세차용품이 매출이 14.4% 늘었고, 롯데마트에서도 1만원대 차량 내부 청소기와 광택기 등이 지난해 보다 50.6%, 세정제와 타월 등 세차용품도 38.9% 매출이 증가했다. 또 집에서 생과일 주스나 건강음료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셀프카잔도 인기몰이 중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난 7월부터 원액·중탕기·커피머신 등 셀프 가전의 매출을 살펴본 결과 매출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는 토스트기가 지난 한 달 동안 35.0%나 많이 팔렸고 믹서기도 매출이 40% 증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불황으로 셀프용품들이 지역 유통업체에서 잘 팔리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 한 여성이 염색약을 살펴보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지역 무역수지 7억600만달러 흑자

中·EU·중동 수출 증가...전남 첫 흑자전환

지난달 광주·전남의 무역수지가 7억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1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7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는 광주지역의 무역흑자 지속과 전남지역의 원유 등 원자재 수입 감소로 7억 600만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지역 무역수지는 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올해 처음으로 월간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중국, EU, 중동지역 수출 증가와 원유 등 원자재 수입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무역수지는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 등 세계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출 실적에 힘입어 7억 2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7월까지 전체 누적 무역수지는 15억 4000만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광주의 수출은 전월대비 2.4% 감소한 11억 4500만달러, 수입은 8.6% 월간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중국, EU, 중동지역 수출 증가와 원유 등 원자재 수입 감소

4%, 중동 4.4% 수출이 감소했다.

광주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가 전월대비 5% 증가한 반면 철강, 가전제품, 수송장비가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월대비 9.1% 감소한 32억5700만달러, 수입은 전월대비 21.5% 감소한 32억 53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출은 중국, 중동, EU가 증가했으나 미국, 동남아시아 지역은 감소했다. 전남의 주요수출품목은 전기·전자제품과 화공품, 철강제품이 증가했으며 선박, 기계류정밀기기 수출이 감소했다. /최재호기자 lion@

하이트진로, 지역사랑기금 1850만원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대표 이남수)는 22일 시청서 지난 4월부터 7월에 조성된 ‘광주전남사랑기금 10차 조성금’ 1850만원을 강운태 광주시장,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성렬 회장, 하이트진로(주) 성동욱 광주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가졌다.

하이트진로(주)광주지점은 참이슬 ‘情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 일환으로

2010년 1월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1병당 2원씩 출연해 조성된 ‘광주전남사랑기금 10차 조성금’ 2억원 달성을 기념해 행사를 진행한다. 10차에 걸쳐 기탁된 1억 7933만5960원은 2010년 1월~2012년 7월까지 조성된 사랑기금으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돼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6월 제조업 생산 광주↓ 전남↑

지난 6월 중 제조업 생산이 광주지역은 감소로 전환한 반면 전남지역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2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 동향’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 6월 중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4.5%→-0.4%)과 출하(+5.6%→-2.5%)는 모두 감소로 전환했다.

전남지역의 6월 제조업 생산(+5.5%→+7.4%)과 출하(+4.2%→+4.7%)는 모두 화학제품과 제1차금속 등 주력제품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다.

광주지역은 건축착공 면적 증가폭이 축소(+36.6%→+24.0%)였고, 건축허가면적도 감소로 전환(+34.8%→-41.4%)했다.

전남은 건축착공 면적(+53.6%→-18.5%)과 건축허가 면적(+101.2%→-25.9%)이 모두 감소로 전환했다. 미분양 아파트 수는 광주가 전남보다 4가구 증가한 1108가구, 전남이 233가구 감소한 1486가구로 나타났다.

6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광주지역은 감소로 전환(+2.0%→-0.7%)되고, 전남지역은 증가세가 둔화(+1.9%→+1.4%)했다.

7월 중 수출은 광주지역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4.0%→+2.0%)하고 전남지역은 소폭의 감소로 전환(+1.7%→-2.3%)했다.

7월 중 소비자물가는 광주(+1.7%→+1.0%)와 전남(+1.8%→+1.1%) 모두 오름세가 큰 폭으로 둔화했다. 이밖에 7월 실업률은 광주지역이 소폭 하락(2.9%→2.8%)하고, 전남지역이 다소 상승(1.1%→1.6%)했다. /이은미기자 emlee@

한-미 군납협정 ‘없던일로’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27>

아시아자동차공장 유치운동 ③

“승인 먼저” vs “공장 건설 먼저” 입장 맞섬

▲미, 군납적격업체 승인신청 반려

아시아자동차공장 건설 추진위원회가 발족한지 한달만인 1962년 8월 7일 미국 윌리스사의 임원과 차관선인 독일 아이젠버그사의 기술진이 북광주와 서광주 일대를 답사하는 등 예비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막상 본격 추진 단계에 접어들자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혔다. 미국 국방성은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군납적격업체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먼저 자동차 조립 생산공장 건설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시아자동차는 난감할 수 밖에 없었다. 당초 아시아자동차는 윌리스사와 기술도입 및 군납협정을 맺어 국방성의 승인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했다. 윌리스사도 아시아자동차가 한국 현지생산을 위한 자사제품의 조립생산업체로 양사가 군납협정을 맺은 이상 국방성의 승인 심사는 요식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정부 “군납 승인 먼저 받아오

라” 미 국방성은 선 공장 건설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아시아자동차로서는 빠른 시일 안에 독일의 아이젠버그사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공장을 건설해 미 국방성의 승인 요건을 갖춰야 했다.

정부는 차관 도입 승인을 빨리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차관 승인 전제 조건으로 미국 국방성의 적격업체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 것을 요구했다.

차관선에 지불 보증을 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무턱대고 차관 승인을 했다가 일이 잘못될 경우에는 빚을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성과 한국 정부 간에는 서로 ‘공장 건설이 먼저다’ ‘군납보장이 먼저다’라는 식의 줄다리기가 국면이 이어졌다.

이렇게 되자 추진위는 조속한 차관 승인과 공장 건설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관계요로에 전달했다. 미국 국방성의 선공장 건설 요건을 피할 수 없는 이상 차관을 들여다 먼저 공장을 짓는 길 외에

는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듬해인 1963년 2월 12일에는 광주시와 도내 기관장, 경제단체, 사회단체 등이 아시아자동차공장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3월 12일에는 대규모 진정단이 상경, 최고회의 의장과 내각수반, 상공부에 진정서를 전달했지만 미 국방성과 한국 정부간의 상반된 입장을 좁히지는 못했다.

결국 아시아자동차와 미국 윌리스사의 군납협정은 무위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시아자동차공장 건설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한국 자동차 공업의 희망이었던 새나라자동차공장도 가동 중단의 위기를 맞게 됐다.

한국 최초 일관공정의 조립생산라인을 가동할하는 등 한국 자동차 공업을 선도했던 새나라자동차는 설립 허가 과정에서부터 크고 작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당시 5·16 군사정부는 새나라자동차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너트산 부품의 대일 면세 수입권을 줬다. 그런데 이것이 5·16 군사정권을 뿌리 채 뒤엎은 4대 비리의혹의 화근이 됐다.



위 종 (원종인)

www.hanilexpress.co.kr

육지에서 제주까지 완도↔제주 최단시간 100분 도착!!

제주도 2박3일 초특가 딱!! 한달만

제주 PKG 여행 일정표(8월27일~9월27일까지)

일자	교통편	시간	행사일정	식사	일자	교통편	시간	행사일정	식사
1일	전용버스	15:00 16:40	광주-완도 버스터미널 무료셔틀 완도항 출발 제주2부두 도착 숙소도착 및 자유시간 숙소: 일반호텔	석식 (자체식)	3일	전용버스	17:50	호텔조식후 출발 제주기념품소평센터 에코랜드 매직아일랜드(선택관광) 섬유민속마을 중식(토종흑돼지 불고기) 아트랜드 제주2부두 도착 및 출발(완도발) 완도 버스터미널-광주 무료셔틀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투어피 (1인기준) 8/27~9/27까지	
								5인실 4인실 3인실 2인실	
								₩129,000 ₩135,000 ₩139,000 ₩145,000	
								광주-완도 버스터미널 무료셔틀	
								비고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기사, 가이드 수고비 별도입니다. (1인₩10,000)	
								선택관광	
								서귀포유람선 ₩17,500 / 매직아일랜드 ₩18,000 / 마상소 ₩15,000	

송죽레저관광

064-744-9111 / 747-8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10길
23번지 2F